



김달진, 한국 미술 아키비스트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김재희 지음

한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낳은
진정한 문화창조의 길을 말해 주는 '인간 만세'의 이야기
누구 못지않게 미술을 사랑한 미술 도슨트 김재희가
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에게 헌정한 책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미술평론가

수적전석(水滴穿石)의 표상이 된

그림 같은 사람, 김달진

그림 자료 수집을 좋아하던 한 시골 소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한평생을 거기에 바쳤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골 소년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림 수집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들러 어깨가 처질 만큼 가방 가득 미술자료를 채기는 현재 진행형 동사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달진이다.

한국박물관협회 상임고문,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김종규



수집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지속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간혹 수집한 자료를 홀로 즐기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감당이 안 돼 처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달진 관장은 이를 토대로 언론 매체를 발간하고, 박물관을 지어 많은 이들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굳건한 철학 위에 상당 기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공을 들이면 운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미술자료 수집의 선구자이자 미술 아키비스트로 기록되었다.

홍대 앞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김재희



나만의 '상상의 미술관'

고3 때 만든 《서양미술전집》 10권

10권짜리 《서양미술전집》은 고등학교 3학년 봄에 마무리되었다. 이 전집은 미술 사조별로 서양 명화를 스크랩한 것이다. 스크랩 작업을 마무리할 즈음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미술사 흐름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1972년 김달진이 고3 때 만든 《서양미술전집》 10권

한 아키비스트의 집념이 낳은

'인간 만세' 이야기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방대한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는 김달진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탄생 과정을 기록한 이 책은 미술 아카이브 체계의 확립이라는, 얼핏 생각하면 작아 보이지만 기실은 거대한 작업에 바친 한 인간에 대한 증언이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의지와 집념으로 문화 창조의 길을 개척한 '인간 만세'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누구 못지않게 미술을 사랑한 김재희라는 한 미술 도슨트가 미술 아키비스트 김달진에게 헌정한 책이기도 하여 더욱 그 의미를 더한다.

전 문화재청장, 미술평론가

유홍준

Seoul
Art Guide



홍지동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전경

김달진미술연구소
Kim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03015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1길 4
T. 02.730.6214 F. 02.730.9218

그림속책읽기

y_illustr@naver.com



지은이 김재희

재미와 희망이 삶의 모토인 미술 해설가이자 국립현대미술관 도슨트, 국내에 도슨트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스스로 미술관을 찾아가 백남준 1주기 추모전인 '부퍼탈의 추억'전에서 영어 도슨트로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대중에게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애썼고, 그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카가였던 아버지의 미술자료를 정리한 후 한국 미술가들에게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직접 21명의 작가들에게 저작권을 허락받아 6년 만에 첫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 미술가들》을 출간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되었다. 현재는 미술가와 미술 전시를 소개하는 1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공공 기관을 비롯해 각 구청과 평생 학습관 등에서 활발하게 강연을 하고 있다. 당대 문화를 살펴보고 작품의 탄생 배경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많다. 미술에 호가로서 미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집필을 이어갈 계획이다.

